

우리 나라 教育大學의 當面課題

金 忠 幸
(仁川教育大學 教授)

教育大學의 當面課題를 現實的인 면을 위주로 살펴 본다면 機能, 教育課程, 人的 및 物的 資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教育大學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에 대한 재인식과 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支援과 研究의 체계적 확립이라 하겠다.

1. 머리말

初等敎員의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第5共和國이 시작될과 동시에 2년제의 教育大學이 年次的으로 4년제로 승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에 淸州敎大와 濟州敎大를 마지막으로 11개의 敎育대학 모두가 4년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高等敎育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自律的인 改善策을 마련하는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 正식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4년제 昇格에 따라, 解決되어야 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教育大學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즉 初等敎員 養成機關의 중요성과 當面課題를 사회에 인식시키고, 부각시킬 수 있는 거대한 通路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고 생각된다. 차체에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서도 敎育대학에 많은 관심 있기를 바라면서 本題에 대하여 論述하려 한다.

敎育의 質은 敎師에게 크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옛부터 믿어 온 命題이다. 그리고 敎育은 그 기초가 잘 이루어져야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모두가 시인하는 사실이다. 이 兩者의 關係에서 볼 때 그 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初等敎員 養成이 우선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論理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初等敎員의 양성을 위한 관심이 결여되어 왔다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教育大學 敎育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敎育 內的 要因도 작용하지만 敎育 外的 要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初等敎員 養成의 當面 문제를 논하는 데는 政治, 經濟, 社會 및 文化的 狀況 등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敎育 外的 要因을 本稿에서 취급하기란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니와 本題의 焦點을 明確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4년제로 승격됨에 따라서 教育大學 設立의 機能을 다

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를 중심으로 그 現況과 原因 및 解決方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教育大學의 機能

教育大學이 4년제로 승격됨에 따라 教育대학의 機能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義務教育이 9년제로 연장될 것에 대비하여 教育大學이 中學校 教育까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早期 教育의 추세에 맞추어 就學前 教育인 幼稚園 教育을 담당하는 教師까지도 教育大學에서 養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教育大學은 教育法 第118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國民學校 教育만을 맡을 敎員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자도 있다. 國民學校 教育만을 담당하는 교원 양성을 주장하는 理由로 幼稚園 教育은 이를 전담하는 대학의 학과나 전문대학이 있고, 中學校 教育은 中等學校 敎員의 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教育大學 設立의 基本 精神을 살리자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教育大學의 機能 내지 敎員養成 目的의 見解 差異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論理가 있고 수긍할 만한 合理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教育大學의 機能을 法的 規定에 맞출 것인가 혹은 現實을 감안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와 같은 教育大學 機能의 견해의 差異는 자연 教育大學 건반에 걸친 運營 특히 教育課程 運營에 큰 차이를 초래케 된다.

우리 나라의 國民基礎 教育은 法的으로 地方自治制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각 市道에는 教育委員會가 있으며, 그 산하에 國民學校와 中學校를 관장하는 教育廳이 있다. 이러한 行政 組織上으로 볼 때 教育은 그 地方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본다면 각 市道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教育大學은 그 機能이 劃一化되어서는 안 되고 각 지방의 教育 與件에 따라 教育大學의 기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우

리 나라는 理念上으로나 地理的 與件으로 보아 劃一의 要素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統制와 自律의 調和가 요망된다.

教育이 地域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教育大學의 운영도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되어야겠다는 理由를 表 1, 表 2와 表 3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表 1> 學歷年數別 初·中學校 敎員數

(() 안은 %)

지역	연수 학교	11년이하	12~13	14~15	16년이상	계
서울	초	667 (3.11)	5,187 (24.15)	13,140 (61.18)	2,482 (11.56)	21,476
	중	19 (0.15)	107 (0.82)	609 (4.69)	12,254 (94.34)	12,989
충남	초	1,024 (9.45)	3,490 (32.22)	6,084 (56.17)	233 (2.15)	10,831
	중	77 (1.46)	126 (2.39)	771 (14.61)	4,305 (81.55)	5,279
전남	초	1,185 (7.24)	6,098 (37.24)	8,816 (53.84)	276 (1.69)	16,375
	중	97 (1.27)	173 (2.26)	1,110 (14.51)	6,271 (81.96)	7,651
경남	초	1,322 (11.03)	3,230 (26.75)	6,989 (57.88)	525 (4.35)	12,076
	중	47 (0.80)	124 (2.18)	764 (12.97)	4,956 (84.13)	5,891

資料：文教統計年報, 1983.

<表 2> 市道別 初·中學校의 小規模學校數와 百分率

지역	구분	총학교수	소규모학교수	백분율
서울	초	311	3	0.96
	중	243	6	2.47
충남	초	661(43)	423(43)	66.19
	중	221(1)	75(1)	34.23
전남	초	990(225)	653(225)	72.26
	중	303(7)	105(7)	36.13
경남	초	875(124)	666(124)	79.08
	중	266(5)	143(5)	54.61

註：1) 小規模學校：12學級 이하

2) () 안의 數는 分校數

3) 百分率은 學校數와 分校數를 합하여 산출한 것임.

資料：文教統計年報, 1983.

〈表 3-1〉 國民學校兒童의 地域別 學歷平均
(人員: 6,000)

학 년	지 역	국어	사회	산수	자연
3	대도시	73.68	64.00	78.70	71.60
	지 방	58.96	50.08	64.85	58.64
5	대도시	77.52	96.63	62.68	70.99
	지 방	60.03	46.42	45.04	56.67

資料: 韓國行動科學研究所, 國民學校 學力에 대한 分析的研究, 1976, p.20.

〈表 3-2〉 中學校 5個 教科에 대한 學力平均
(人員: 5,000)

지 역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생물
서울	67.99	58.32	61.29	51.61	62.46
지 방	51.95	51.04	54.48	46.25	54.96

資料: 韓國行動科學研究所, 미발간, 인쇄자료, 1975.

表 1에서와 같이 市·道間의 學歷年數別 敎員數는 國民學校와 中學校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시의 國民學校 敎員中 11년 이하의 學歷所有者는 3.1%인데 비하여 慶南道는 11.0%로 그 差異는 7.9%이다. 한편 中學校 敎員의 경우 서울시의 敎員中 15년 이하의 學歷所有者는 전체의 5.7%인데 비하여 忠南道의 경우는 18.6%로 都·農間의 敎師의 學力差가 심하다.

表 2에 의하면 12학급 이하의 小規模學校數역시 市·道間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國民學校가 1.0%, 中學校가 3.0%인데 비하여 慶南道는 國民學校가 전체의 79.1% 中學校가 54.6%이다. 表 2에 의하면 大都市를 제외한 대부분의 道의 小規模 學校數는 國民學校가 전체의 半數 이상이고, 中學校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된다.

表 3-1과 表 3-2에 의하면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大都市와 地方의 학생들의 學力差는 教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의 학생들이 지방의 학생들보다 모든 교과에 있어 우수하며, 그 차이 또한 심하다.

이상의 세 表를 종합하여 볼 때 大都市의 國民學校와 中學校 敎師의 學歷과 學生의 學力이 地方보다 높다. 한편 大都市는 小規模學校가 극

소수인데 반하여 地方은 國民學校는 약 70%, 中學校는 30% 이상이나 되어 學校 規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都·農間의 敎育 興件의 심한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都·農間의 不均衡은 敎育上 여러 가지 政策的 配慮가 요망되게 한다. 특히 敎員 양성과 관련하여 볼 때, 敎員 養成 計劃은 都·農間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解決方案을 例示하겠다. 서울이나 釜山과 같은 大都市의 敎育大學은 國民學校 敎育만을 전담하는 敎員을 양성하되, 小規模 學校가 많은 地方은 初·中學校를 統合하는 9년제 학교로 개편하여 敎育大學出身者가 이러한 학교 敎育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敎育의 質에 있어서나 政局에 있어서 效率化를 기할 수 있다. 물론 初·中學校의 統合은 統計上의 數만큼 이루어 지지는 못할 것이나, 施設, 距離 등 統合 興件이 가능한 학교수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다.

현재 公立幼稚園은 國民學校 敎師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3年 文教統計年報에 의하면 4大都市는 公立幼稚園이 하나도 없는 반면, 대도시를 제외한 地方의 公立幼稚園數는 2,742個로 地方 幼稚園 全體 學級數의 67.0%나 된다. 政府 施策에 따라 公立幼稚園數는 急增할 것이 예상되며 이들 敎育을 담당할 敎師는 敎育大學出身者로 充당될 가능성이 높다. 公立幼稚園 敎育을 교대 출신자가 담당해야 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敎育대학에서는 幼兒 敎育課程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敎育大學의 機能은 地域 實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정은 신중한 研究가 이루어진 후에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Ⅲ. 敎育課程

敎育대학의 設立 目的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냐는 敎育課程 構成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敎育대학의 기능의 견해차 때문에 敎育대학의 敎育과정 구성은 4년제 昇格이 발표된 직후부터 敎師敎育 擔當者間에 많은 意見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1980年, 文教部에서

구성한 教育大學 教育課程 研究委員會에서는 敎養過程을 45학점, 專攻過程 75학점의 두 영역으로 나누고, 專攻過程에는 教育 基本 科目(16학점), 各科 教育(24~27학점), 選擇科目(48~51학점), 그리고 教育實習(4학점)을 두었다.

그런데 1982年 文敎部는 教育大學 教育課程을 크게 修正하였다. 즉 敎養過程은 49학점, 專攻過程은 91학점으로 정하였다. 專攻過程에는 教育 基本 科目(24학점), 敎科教育 科目(38~42학점), 教育實習(4학점), 深化過程(21학점)과 自由選擇(0~4학점)을 두었다.

두 教育過程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教育 基本 科目의 學點數가 8학점, 各科教育이 14~15학점이 增加한 반면, 선택과목이 深化過程이란 명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學點數가 27~30학점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教育課程案에 대하여 敎사敎育 담당자 간에 贊反의 견해가 있다. 1次案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2次案이 敎育대학의 機能을 축소시키고 學生들의 自我實現의 機會(예를 들면 大學院 進學)를 감축시킨 結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2次案을 찬성하는 교수들은 敎育대학의 본래의 設立 目的이 初等敎員 養成에 있으므로 지나친 選擇科目의 深化는 國民學校 教育에서 全人敎育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國民學校 敎壇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改正案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兩者間의 주장은 敎사敎育 담당자의 專攻과 어느 地域에 근무하느냐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敎育대학의 기능에 대한 見解差에서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1982년에 개정된 教育課程은 國民學校敎育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敎員을 養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深化過程(副專攻)의 해석에 대해서는 敎育대학마다 그리고 각 과 敎育담당자에 따라 심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런데 深化過程이 일반대학의 敎科目的의 性格을 띠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各科 敎育 指導의 深化에 力點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견해차는 적어도 同一 大學內에서 만이라도 意見의 一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일 대학내에서도 科에 따라서는 순수 이론교과에 치우치는가

하면, 어떤 과는 주로 敎科 敎育의 指導에 중점을 두고 있어 深化過程 運營에 混線을 밟고 있다.

教育課程은 教育 目的 達成의 구체적인 實踐案이며, 기틀이기 때문에 어느 敎科를 선정하며 어느 學期에 가르쳐야 하며, 深化過程 履修의 先修敎科는 各科에 따라 어떤 敎科가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敎育대학 教育課程 運營은 이러한 고려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4년제로 改編된 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敎育과정의 내용이나 운영에 試行 錯誤가 전혀 없을 수 없겠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敎育대학의 教育課程이 定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敎育대학 敎育과정에 대한 研究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Ⅶ. 人的 및 物的 資源

여기서 人的 資源이라 함은 敎사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敎授의 資質과 充員을 뜻하며, 物的 資源은 施設의 質과 量을 의미한다. 현재 敎育대학은 이 兩者에 있어서 많은 改革과 改善이 요망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一般大學 및 敎大의 學位別 敎員數

(() 안은 %)

연도	대학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1981	일반대	5,278 (30.19)	7,944 (45.44)	3,938 (22.53)	321 (1.84)	17,481
	교대	17 (3.53)	311 (64.52)	138 (28.63)	16 (3.32)	
1982	일반대	5,901 (29.30)	9,323 (46.30)	4,651 (23.10)	262 (1.30)	20,137
	교대	20 (3.85)	359 (69.04)	125 (24.04)	16 (3.08)	
1983	일반대	6,797 (30.25)	10,285 (45.77)	5,175 (23.03)	216 (0.96)	22,473
	교대	28 (5.20)	377 (70.07)	118 (22.93)	15 (2.79)	

資料: 文敎統計年報, 1983.

〈表 5〉 一般大學 및 敎大의 學歷年數 比較

연 도	대 학 번	진 계	박 사	석 사	학사 및 기타	평 균	차 이
1981	일 반 대	17,481	5,278	7,944	4,259	18.42	0.95
	환산년수	321,974	110,838	142,992	68,144		
	교 대	482	17	311	154		
	환산년수	8,419	357	5,598	2,464		
1982	일 반 대	20,137	6,901	9,323	4,913	18.39	0.82
	환산년수	370,343	123,921	167,814	78,608		
	교 대	520	20	359	141		
	환산년수	9,138	420	6,462	2,256		
1983	일 반 대	22,473	6,797	10,285	5,391	18.43	0.77
	환산년수	414,123	142,737	185,130	86,256		
	교 대	538	28	377	133		
	환산년수	9,502	588	6,786	2,128		

資料 : 文教統計年報

註 : 환산년수 계산은 박사를 21年, 석사를 18年, 학사 및 기타를 16年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1. 人的 資源

교육대학이 4년제로 승격됨에 따라 敎科目이 증가하고 學生數도 증가되었다. 그리고 2년제와는 차원이 다른 敎授(teaching)의 質을 요구하게 되었다. 교과목과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敎授 充員은 이미 文教部에서 그 計劃을 발표한 바 있다. 즉 新規로 採用될 敎授는 博士學位 所有者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박사로 충원이 가능치 못한 畧는 이에 준하는 實力者로 충원토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의 교수들은 일반대학에 비하여 그 質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던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一般大學과 敎育大學 敎授의 學位別 및 學歷年數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表 4에 의하면 博士學位 所持者는 一般大學이 全體人員의 30.3%, 敎育大學이 5.2%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碩士學位인 경우는 一般大學이 약 46%, 敎育大學이 약 70%이며, 學士 및 기타의 人員數의 百分率은 각각 24.0%와 25.7%로 비슷하다.

表 5에 의하면 一般大學과 敎育大學 敎授의 學歷年數의 平均値의 差異는 1981년에 0.95年, 1982년에 0.82年, 1983년에 0.77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4와 表 5를 종합하여 볼 때 敎育大學 敎授가 一般大學 敎授보다 博士學位數나 學歷年數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兩者間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교육대학 11개 모두가 完成 學年이 되는 1987년에 가서는 敎大 敎授와 一般大學 敎授의 學位數나 學歷年數가 거의 비슷한 水準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理由는 앞으로 교육대학 교수의 數가 대폭 증가될 것이고 이들이 高學歷 所有者들로 充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대학이 우수한 資質을 가진 敎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과 同一한 처우와 연구 要件이 조성되어야겠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교육대학 교수 중 博士學位를 취득한 후 상당수가 일반대학으로 진출하였다. 그 理由는 轉出者 대부분이 自己 專攻學科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研究 活動에 有利하며, 또한 교육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여러 가지로 不利하다는 社會的 通念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轉出者의 상당수가 敎育大學을 一般大學 轉出의 정류소로 생각하는 경향은 敎育大學 支援의 취약에도 있지만은 初等 敎員 養成의 使命感의 결여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교육대학 교수는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國民의 基礎敎育을 담당하는 핵심체인 國民學校 敎師의 敎師(teacher educator)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과 긍지는 우

선 政府의 지대한 關心과 支援이 필요하거나와, 教育大學 自體內에서도 세미나와 協議會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겠다.

現職教授의 資質 向上을 위해서는 앞으로 敎員大學校가 開設될 경우 敎育대학 敎수들에게 敎育의 上位學位 取得의 機會가 주어져야겠다. 현재 재직 중인 敎育대학의 상당수의 敎수는 自己 專攻에 맞는 上位學位 取得 學科가 國內에 거의 없기 때문에 進學을 못하고 있다.

2. 物的 資源

敎育大學이 2년제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施設의 量이나 質이 그런대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년제로 개편되면서 物的 資源은 表 6에서와 같은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表 6〉 大學別 施設確保率과 計劃

大學	1983	1986
4年制大學	88.7	95.0
專門大學	83.0	92.8
敎育大學	69.2	92.8

資料：政策協議會, 敎育部門實踐計劃(案), 1983, p. 37.

表 6에 의하면 1983년 현재 敎育大學 施設確保率은 69.2%로 4년제대학보다 19.5%, 專門大學보다 12.8%나 落後되어 있다. 政府의 계획에 의하면 1986년에 敎育大學 施設을 92.8%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으나 과연 計劃대로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理由는 1984년 會計年度의 豫算 凍結로 인하여 敎育大學만을 위해 例外的으로 投資할 것인가의 의문과 더불어, 1985~1986년의 2年間에 23.6%의 施設投資를 敎育대학이 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表 6은 案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할 여지는 많으나 敎師敎育이 잘 이루어지려면 計劃案 대로의 시설 투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다행히도 4년제 一般大學의 施設 確保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一般 大學校의 1個校의 모집정원밖에 안되는 11個 敎育大學(1983年度 모집정원은 4,200명임)의 시설 확보를 위한 投資는 政府의 意志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問題는 敎育政策 立案者와 經濟計劃 擔當者의 敎師敎育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敎育大學의 當面 課題中 세 가지에 한하여 理論的인 側面보다는 現實的인 面에서 問題點의 現況과 原因 및 解決案을 主觀的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案은 보는 이에 따라 見解를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敎育大學의 役割이 지대하다는 점을 關係者들이 인식하고, 敎育大學 發展을 위한 지속적인 支援과, 이를 위한 研究가 體系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